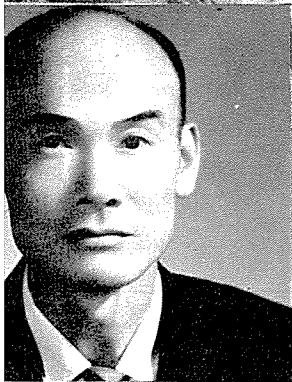


# 意志의 齒科人



- ▷...滿 10餘年間을 默默地 忠南道 全地域의 無齒醫村과 150餘個섬을...◁
- ▷...두루 돌면서 가난한 道民에게 齒科治療를 해주는 朴三用 先生을...◁
- ▷...찾았다. 마치 傳說의 主人公과도 같은 朴三用 先生은 또한 國家...◁
- ▷...施策을 가장 잘 遵守하는 模範國民이기도 하다. ...◁

**齒科醫師로서 社會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은 無料診療라고 생각해서**

當時만 해도 잠잠하던 無醫村 無料診療를 默默地 實行해 온지가 1976年 부터 올해로 滿 10個 年 째로 접어든 朴三用 先生의 執念은 앞으로 健康만 許諾한다면 繼續하겠다는 意志의 齒科人 을 찾아 보았다.

처음 5,6年 間은 忠南坊防谷邑을 빠짐 없이 巡 廻診療를 하다가 70年 初부터는 忠南管轄 150個 邑으로 돌았 無療診療를 해 오는 동안 齶蝕罹患 의 섬을 對象으로 落島診療에 나섰다. 「돌보지 섬」이란 이름의 7屯半 짜리 病院船에 어린이와 안 먹는 어린이의 罹患率 比率은 一般 몸을 依支하며 各 島嶼를 巡廻할 때의 苦衷은 어 的으로 이를 닦는 陸地 어린이나 이를 거의 닦지 루 말할 수 없었다. 診療器具를 손수 甕에 메고 오는 섬 어린이와의 比率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3,4km를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診療를 마 果物에 있어서도 木果는 고사하고 참외나 수박을 치고 선창가로 와 보면 풍랑으로 배가 오지 못해 그림에서나 보아서 아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 한 목숨 못 마시고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배 이렇게 단 것을 먹을 機會가 없는 섬 어린이가

감사

가 오지 않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생활 을 10年 間이나 스스로 行한 것이다. 數 많은 섬 을 돌아 다녔다 바닷물에 걸코 밭 한번 담가 본 적이 없다는 名實共히 徹底한 意志의 齒科人이다. 1976년 2월 20일



##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煥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73) 0474 (72) 9712

이를 갖는다면 齶蝕罹患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税金自進納付 混食履行으로 國民된 道理를 다하며

대머리 할아버지로 통하는 섬 어린이

1939年 齒科醫師免許를 取得한 後 滿洲 吉林地方에서 開業을 하다가 1945年 解放과 더불어 現在의 場所(大田市 中洞 58 朴 齒科醫院)에서 30餘年間 조용히 患者診療에 臨하고 계시다.

「섬을 4,5年式이나 돌아다녔어도 朴三用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만 單 몇사람 뿐이고 그대머리 할아버지가 섬에서 통하는 唯一한 이름입니다.」 하시며 破顔하실했다.

道, 教育廳, 醫師의 三位一體로 새마을 진료 실시 농어민의

陸地の 初中高의 校長이나 教職員은 勿論 심지어는 學生들까지도 거의 거리에서 만나면 人事를 할 程度라니 無料診療의 깊히는 不聞可知이라고 나 할까. 大田市 및 忠南齒科醫師會의 會長을 任하고 現在는 口腔保健協會 忠南支部 理事長職을 맡고 있으면서 道當局은 勿論, 教育廳과의 紐帶는 너무도 密接하며 道 새마을 診療計劃樹立을 朴三用 先生이 맡고 있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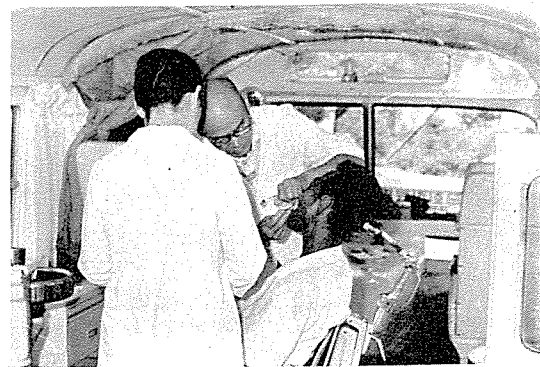
2男 4女中 長男(朴興起)이 1937年 서울 齒大를 卒業하고 空軍에서 除隊했다.

이제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最善을 다해서 어려운 患者를 더 많이 보살펴 주는 것 뿐이다.

그 동안 患者 診療數가 얼마나 될까요라는 물음에 짐작에 맡긴다고 하셨다.

하루에 263명 까지 治療를 해 준 적이 있다는 朴三用 先生은 너무 疲困해서 쪼개는 수박도 먹기가 귀찮은 때가 있었다고 했다.

國民의 道理를 다하며 살아온 意志의 齒科人 朴三用 先生은 收入의 1/3은 税金으로, 1/3은 子女教育費로, 1/3은 生活費로 쓴다. 그리고 徹底한 混食에다 可能한 限 左側通行을 履行하는 模範國民이기도 하다. 이제 그 面貌의 一端을 翰篇의 無料診療所感과 더불어 더듬어보자.



우리 나라에서 치과 이동 진료차를 제일 많이 타본 先生이 바로 朴三用 先生이시다(월성리에서).

## 精誠을 다하는 三信

純金, 白金도 1g 씩 電話注文에 配達합니다.

# 三信商會

전화 : 53-9111 · 53-6555



□ 순회진료 소감

1968년 8월 부터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하사하신 치과진료 차로 7개 성상을 증남 도내를 순회하여 보니 참으로 천태 만상이었다.

어떤 편장이나 리장은 귀찮다는 식이고, 어떤 편장이나 리장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80%는 귀찮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원인은 단순하다. 점심이라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어서인 것 같다. 어떤 군수는 군내에서 진료가 모두 끝나도 열줄 조차 보이지 않는가 하면 어떤 군수는 진료 현장까지 찾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었다.

거의의 군수는 귀찮다는 양상이고 또 보건소장이 무료 진료반을 대하는 태도는 90%가 냉정한 편이었다.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의 경우를 살펴 보면, 고맙다가 50%, 사탕발림이다(아마 다음에 출마라도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50%, 이런 인심 속에 7개월을 시간을 버리고 주머니를 털면서 무료 진료에 응사하는 朴三用은 바보일까.

육지 진료에서 도서진료로 바꾸었다. 도서진료용 병원선은 배도 작고 성능도 별로 좋지 않아 방파제 없이는 정박이 되지 않는다. 한 섬의 진료가 끝나면 배척까지 왔다가 다시 진료를 떠나야 한다.

서산 지역의 섬을 떠친 어항에서 왕래하자니 거리 관계로 시간이 한없이 걸린다. 도서 지방을 순회 진료하는데 에로는 시간이 한없이 걸린다는 것이다. 진료가 끝나고 선창가에서 전마선을 기다리게 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아 배도 고르고, 목도 마른다. 건디기 어려운 고비가 거듭거듭 닦쳐온다. 언젠가 서산보건소에 들렀더니 보건소 후판에 "朴三用"이 오거던 연락해 달라는 군수의 전갈이 쓰여져 있었다. 처음 만나는 서산군수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다. 이 섬 저 섬에서 시달리던 피로가 가신 것 같다.

(이 글은 1975년에 도서지역 진료물 마치고 쓴 소감중의 한편을 朴 先生의 승락 없이 옮겨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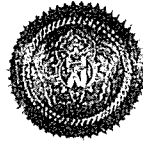
대머리 할아버지와 함께, 섬 어린이들은 치과 의사 朴三用은 몰라도 대머리 할아버지는 너무도 잘 안다(서산군 황도, 거아도에서).



감 사 장

소 속 : 충청남도 치과의사회  
직 위 : 회 장  
성 명 : 박 삼 용

귀하는 보건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봉사정신으로 평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바 크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1973년 4월 7일

보건사회부장관 이 경



數 많은 賞狀은 朴三用 先生이 意志의 齒科人임을 雄辯해 주고 있다.



無料診療는 勿論이러니와 時間만 나면 口腔啓蒙講演에 나선다(천안시 및 천원군 內 初中校 敎職員 58名 앞에서 "충치와 풍치가 골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講演하고 있다).

= 各種 齒科材料 一切 =

# 興 安 齒 材 商 社

代表 尹 正 權

서울特別市 中区 南大門路 5街 20-1

(청송빌딩 308호 · 지원다방 3층)

22-6213